

기조 강연

## 한국 경제지리학 50년, 학회창립 10주년, 회고와 전망

형기주\*

한국경제지리학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금년은 우리학회가 창립된지 10주년임과 동시에 이 땅에 아카데미 경제지리학의 논문이 처음 등장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차체에 우리는 경제지리학의 지난날을 되새기면서 앞날을 밝혀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1. 고시과목에서 아카데미 과목으로

한반도에 「경제지리학」이란 생소한 이름이 쓰이게 된 것은 광복 이전부터입니다. 각종 고시과목(考試科目)에 경제지리학이 선택과목으로 부과되어 있었고, 당시의 대학 예과(豫科)나 전문부에서 이 과목을 널리 개설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필독서의 하나가 일본인 교수 사토·히로시(佐藤 弘)나 고쿠쇼·이와호(黒正 巖)가 집필한 경제지리책이 유명했습니다.

광복 직후, 한국의 학계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학교 교단에 설수 있는 유자격자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육뿐 아니라 각종 체제가 일제를 닮았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그것을 변안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은 바르게 잡혀 있지만 아직도 법제용어나 토목·건축용어는 일본의

그것을 직역하여 쓰고 있는 사례가 많지요.

광복 후, 처음으로 출판된 경제지리 교재로는 박동묘(1955년) 저작으로서 일조각에서 나왔습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지요<sup>1)</sup>. 저자는 일본 동경상과 대학 출신으로 농업경제 전문가이며, 훗날에 농림부 장관을 지낸바 있습니다. 이 책은 대체로 자원의 생성·분포·거래 등을 취급한 「상품학」에 흡사한 내용으로서 농업입지론과 공업입지론은 그 윤곽만을 간단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59년에 중앙대학의 송종극 교수와 서울대학의 육지수 교수가 각각 「동국문화사」와 「서울고시학회」에서 경제지리 교과서를 펴낸바 있었습니다.<sup>2)</sup> 송종극 교수의 저서는 농업과 공업뿐 아니라 인구·교통·무역 등을 모두 취급한 그야말로 옴니버스와 같은 체제로서 표제만 「경제지리」이지 지리학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생소한 내용이었지요.

육지수 교수의 저서는 본래 「방법론」과 「자원론」을 담은 상권과 「입지론」을 담은 하권으로 나누어 출판될 계획이었으나 결국 하권의 꿈은 이루지 못한채 저자는 1967년에 타계하셨습니다. 육지수 교수의 경제지리(상권)에 실린 지리학 방법론에는 K. A. Wittfogel의 논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sup>3)</sup>. 1929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1985년에 비판지리학 잡지 Antipode(제17권, 제1호)에 R. Peet에 의해서 해설된 바 있고, Wittfogel의 제자 G. L. Ulmen에 의해서 전문이 영역되어 있습니다<sup>4)</sup>.

육지수 교수 「경제지리」상권에 실린 자원론은 중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래의 상품학과 달리 자원의 부존, 거래, 그리고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분쟁 등 그야말로 지리학도들이 접근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당시 E. Zimmermann이 저술한 「World Resources and Industries」1950년판을 많이 참고한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지리서가 최초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은 1958년입니다. Jones와 Darkenwald 공저 「Economic Geography」1954년판이 서울대학교 최복현 교수에 의해서 번역·출판되었지요<sup>5)</sup>. 이 책은 자원론 성격의 방대한 책으로서 각 산업별로 나누어 상세히 취급한 경제지리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51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한 서울대학교는 최초의 석사학위를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1957년에 배출하였습니다<sup>6)</sup>.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아카데미 경제지리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1957년 이전의 한국경제지리학이 이른바 고시과목으로 존립하였다면, 그 이후부터가 아카데미 경제지리학으로 자라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석·박사 논문이 나왔고, 1963년에는 대한지리학회 회지가 발간됨으로서 경제지리학 관계논문이 게재될 수 있게 되었으며, 드디어 1997년에는 독립된 「경제지리 학회」가 창립되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한국경제지리학의 제1차 divide는 1957년으로서 경제지리학이 고시과목에서 아카데미과목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아카데미 과목으로의 전환을 한국경제지리학의 과학적 출발로 본다면 금년이 그로부터 50주년이고, 동시에 경제지리학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셈입니다.

## 2. 지역론과 입지론의 갈등

대한지리학회 창립된 것은 1945년, 그로부터 30주년 되던 1975년에 학회사상 처음으로 「한국지리학 30주년 회고와 전망」이란 이름으로 각 분야별 학술대

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지리학」분야는 농업 지리와 공업지리가 주로 취급되었습니다<sup>7)</sup>. 그때까지 발표된 논문중에 이 두 가지 부문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20년후, 1995년에 학회창립 50주년기념 심포지움에서 「한국 경제지리학 반세기, 연구성과와 과제」가 발표된바 있습니다<sup>8)</sup>. 당시 발표자들의 견해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나 학문적 성찰의 편의상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을 놓고 현재를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회창립 30주년」의 그것은 주로 1960~70년대를, 「창립50주년」의 그것은 주로 1980~90년대의 성과를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학회창립 30주년」기념 심포지움에서는, ① 당시의 연구가 「입지론」연구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순수입지론은 체계화가 매우 잘되고 세련된 이론이므로 농업이나 공업지역 연구에 좋은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0~70년대 선진국의 지리학은 지역론이나 경관론의 논쟁을 이미 넘어서서 신고전 입지론의 분석법을 통해서 지리학의 이론화 법칙화의 추구에 열중하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이것을 넘어서서 반실증주의 지리학이 논의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당시 우리의 지리학은 선진국에 비해서 약 10년 이상의 시간격차가 있었던 셈이지요. 당시 우리의 낮은 경제수준과 해외교류 및 문헌정보 취득의 어려움이 잘 반영된 모습입니다. 당시 일본의 지리학은 워낙 전통이 오래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앞섰습니다만 본래 지역연구의 뿌리가 깊어서 지리학의 계량화, 이론화에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감지되었습니다. 후술하는바와 같이 이 문제는 1980년대부터 구미 여러 나라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극복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적응은 경제지리학의 학문적 성격상 역시 둔감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지리학의 문화적 전환과 제도주의적 전환, 기술혁신과 신경제공간, 경제지리학에 있어서 정치·경제적 접근, 그리고 경제지리학과 gender문제 등에 관해서 말입니다.

② 「학회창립 30주년」기념 논문에서 지적된 두 번째의 주문은 도시화와 연결된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매우 타당한 주문이고 그간의 연구성과를 보아도 역시 공업은 도시구조, 도시화의 관계에서 취급하는 경향입니다.

③ 재래공업(수공업, 전통산업)의 지역적 존립형태, 재래공업지의 변화과정 등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몇몇건의 연구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④ 구체적인 지역연구의 축적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도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과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경제지리학만의 통계는 아니지만 1963년 이후 2006년까지 대한지리학회 논문집에 실린 총 737편의 논문 중에 284편이 한국내 각 지방에 관한 연구이고, 88편이 외국의 여러 지방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입니다<sup>9)</sup>.

⑤ 경제지리학 전문연구자의 저변확대와 함께 경제지리학과 입지론에 관한 입문서의 출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입니다. 대한지리학회 회원 총 998명 중에 경제지리학(지역개발, 관광지리 포함) 전공의 회원수가 246명(24.6%)에 이르기 때문입니다<sup>10)</sup>. 다만 경제지리학 응용분야(각종 연구소)에는 적지 않은 지리학도가 취업하고 있으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 인력은 불과 22인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지리학 입문서는 4종이 출판되어 있고, 입지론의 입문서는 전무한 상태이지요.

1960~70년대의 한국 경제지리학 동향을 요약한다면 지역론과 입지론의 갈등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분야나 공업분야나 간에 지역분류와 지역설정 작업에 정성을 드리던 시대가 바로 1960~70년대요, 지역분류나 지역설정이란 곧 지리학의 지리적 추구시대에서 법칙 추구시대로 이행되는 과도적 시기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리학에 있어서 법칙추구가 과학철학이나 실증주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으나 법칙추구를 성급하게 서

두른 지리학자들은 일찍이 경제학에서 개발된 입지론에 매력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나 고전 입지론이나 신고전 입지론이 워낙 난해한데다가 추상성이 강해서 지리적 사실을 분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못되었습니다. 1960~70년대 영·미쪽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이론과 계량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실증주의 지리학의 논쟁이 특히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뜨겁게 전개됩니다. 드디어 세계의 지리학은 여러 가지 주장이 만발하는 백가쟁명(百家爭鳴) 시대를 맞게 되었지요.

이러한 세계적 흐름속에서 1960~70년대의 한국 경제지리학은 입지구조나 지역구조를 변동과정에서 파악하려는 경향과 일정시점에서 분류작업을 통해서 공업지역구조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노력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sup>11)</sup>. 이것이 지역론과 입지론, 즉 지리적 접근과 실증주의적 접근의 갈등이 표출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 3. 다양한 연구과제

1980년대 이후, 비단 경제지리학뿐 아니라 인문지리학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sup>12)</sup>.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독과점 기업이 성장하여 이들의 조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입지도 달라지게 되고, 각 생산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이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주로 단일공장의 입지를 다루는 일이 경제지리학의 주요 작업이었으나 이제는 서로 연계된 기업, 즉 기업의 본사와 지사, 각종 연구기관, 각종 서비스업체, 그리고 각종 생산공장 등이 서로 연계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종전의 입지론적 감각으로는 이른바 「기업의 입지」를 밝히기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자기술의 혁신과 통신혁명, 그리고

운송수단의 고속화·대형화는 경제지리학의 시각에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일찍이 간파한 학자가 사회학의 M. J. Piore와 C. F. Sabel입니다. 저들은 근대산업사회의 역사상 두 번의 위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첫 번째 위기는 19세기 후반과 1930년대의 이른바 케인즈 복지국가 시대의 대기업 위기를 말합니다<sup>3)</sup>. 이때의 위기는 쉽게 감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기존의 체제로는 재화의 생산과 소비간의 원활한 보조일치를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로서 특징 지워지는데, 이러한 체제는 보완되거나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연결시켜주는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circuit)를 “조절메커니즘”이라 하고 이것이 붕괴되었을 때를 “조절위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의 위기는 위기라고 덜 느껴지는 것으로서 첫 번째처럼 일정한 산업기술 시스템과 연관된 힘의 분포나 수입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산업기술 자체의 선택과 연관된 그러한 종류의 위기를 말합니다. 산업기술이란 과학적,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완벽한 논리를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지요. 기술이 발달하고 쇠하는 것은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의 구조에 전적으로 의존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부의 축적과 분배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의존합니다. 기술이란 마치 사회발전의 동력을 반영하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보급되기 시작하는 짙막한 기간, 즉 「산업 divide」에는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그것이 다음에 오는 수십년 동안의 기술개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산업 divide는 다음에 나타나는 조절위기에 대한 배경막이자 골조(骨組)입니다<sup>14)</sup>.

Piore와 Sabel은 1970년대 초반이후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위기, 즉 기존의 대량생산체제를 지탱하던 생산과 소비의 동시 붕괴현상을 기술발달에 기인하는 구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전략의 하나로 유연적 전문

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의 공간적 표출형태로 산업지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이탈리아의 산업지구가 잘 알려진 사례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경제지리학에서 최초로 제시한 학자가 A. Scott입니다. 그는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집적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신제도학과 경제학의 한 부류의 「거래비용」개념을 도입합니다.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수직적 통합이 조직의 경직성을 야기함에 반해서 수직적 분산은 생산체제의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생산의 수직적 분리는 ① 수요의 급변이나 경쟁의 심화 및 지속적인 제품 차별화 등으로 인해 시장조건이 불확실할 경우, ② 상호 연결된 생산공정들의 최적 운영규모가 다양할 경우, ③ 시장실패의 조건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나타날 경우, ④ 노동시장이 다양한 산업, ⑤ 공업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수직분산된 생산체제내에서 기업들은 상호간의 강한 연계를 필요로 하며, 이것이 새로운 집적을 가속화하여 이른바 「신산업공간」을 만들게 되지요.

한국의 경제지리학계에서 1980년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기업조직의 변화와 입지, 첨단기술산업과 과학단지의 개발,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경제, 다공장기업과 분공장의 의사결정 등으로서 대체로 Key Word가 기업조직, 의사결정, 분공장, 첨단기술, 과학단지로 요약됩니다. 결국, 1980년대 한국경제지리학의 화두는 입지론에 있어서 ① 기업조직론, ② 의사결정론이고 이 밖에 많은 논문이 아직도 계량수단을 통해서 인자추출(因子抽出)을 하는 내용, 과학단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수탁과제 등이 팔목됩니다.

1960~70년대에는 농업이나 굴뚝산업에 관한 논문이 있었으나 1980년대에는 거의 자취를 감춘 대신에 정기시장 연구, 우시장 연구, 약령시 연구, 재래시장 연구, 각종상품의 유통, 통근통학, 화물과 여객수송 등의 연구가 계량적 수법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지리학회 창립5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박삼욱 교수는 장차 경제지리학 전반에서 중시해야 할 연

구과제를 ① 세계경제기구의 출범에 따른 지역경제 또는 국가경제 우위의 변화, ② 경제구조 재편 및 이에 따른 지역구조 변화, ③ 환경문제, ④ 첨단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산업공간조직의 변화, ⑤ 문화경제발전, ⑥ 해외지역연구로 요약하고 있는데<sup>15)</sup> 이것을 지금 현실로 조명할 때 경제구조 재편, 첨단기술, 문화경제에 관한 연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1980년대는 다양한 연구과제가 발표된 반면에 다양한 양식의 접근은 찾기 어려운 것 같고, 환경문제에 관한 경제지리학적 접근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 4. 전통과 혁신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생산요소 중에 노동과 자본은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지만 「기술」은 흔히 불변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에 대해서 슈페터의 경제학에서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와서 약 10년 이상을 미국경제는 물가상승의 압력이 없이 전례없는 성장을 달성한 결과 일부 학자들은 미국경제의 고성장으로부터 신경계(New Economy)라는 용어를 창출하였습니다. 「신경제」란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학자들은 신경계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가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 미국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지식기반산업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과 교통·운수산업의 발전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그리고 사람·자본·기술의 이동을 확대하면서 세계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결국, Globalization이란 「지구적 규모의 시장경제화」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경제뿐 아니고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온 세계를 하나의 큰 파도속에 휘몰고 갑니다. A. Giddens는 이렇게해서 만들어지는 미래 사회를 Global Cosmopolitan Society라 했습니다<sup>16)</sup>. 이렇게되면 국민국가 뿐 아니라 가족·노동·전통 및 심지어 자연에 이르기까지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회를 생각하면서 지리학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지리학의 Key Word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적·집괴(Cluster), 연결망(Network), 배태성(Embeddedness)입니다. 물론 이들 용어는 완벽하게 공간성을 함의한 지리적 개념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2006년 12월 「대한지리학회회지」에 박삼옥 교수의 상세한 글이 있으므로<sup>17)</sup> 여기에서는 저의 의견 몇가지만 첨가하겠습니다.

Cluster란 상품의 흐름에 연계된 상호의존적 기업들의 집합을 두고 경제지리학에서 쓰고있는 용어입니다. 오늘에 있어서는 지식창출업체가 집합의 동인(動因)이지요. 옛날부터 지리학자들은 지리적 사실의 분포나 집적(集積)현상을 논할 때 흔히 이 말을 사용하여왔고 특히, 고전입지론이나 신고전입지론에서는 집적의 요인, 형태, 장소, 이익 등에 관해서 체계적인 연구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메카니즘이 오늘과 다를 뿐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 Scott가 산업생산의 유연적 전문화를 검증하면서 대기업의 수직적 통합, 내부경제화 대신에 수직적 분산과 거래비용의 개념을 주장합니다. 즉, 대기업이 어떤 부분을 분리하여 떼어 놓으면 이들은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각종 서비스에의 접근이 용이한 대도시에 입지하게 되고, 그 곳에서 새로운 산업지구를 뿌리내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메카니즘은 다르지만 집적을 통해서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고 따라서 새로운 산업지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고전·신고전 입지론의 집적·분산에서도 취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A. Scott가 개념화한 「거래비용」이란 금전적으로 지불되는 비용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치러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도 이미 M. Greenhut가 언급했던 「비

표 1. 테마별 논문수(경제지리학회지, 1998~2007)

단위(편)

토지이용	1	금융	4
농림수산업	4	무역	2
수공업	1	정보화	2
방법론	4	물류·교통	11
공업화, 산업구조	4	문화산업	14
지역경제	3	관광	11
취업·노동시장	6	삶의 질	3
공업단지·입지	30	주택·부동산	3
산업·개발특구	6	도시개발	8
다국적기업	8	사회간접	1
지식산업·클러스터	24	지역개발	10
상업·서비스	16	기타	5

계 181

용절감 인자」 또는 「순수개인적 인자」와 흡사한 개념입니다.

Network 개념 역시 graph이론을 적용한 교통지리학에서 한때 많이 취급하던 개념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물리학, 경영경제학, 사회학에서도 널리 원용되고 있지요. 교통지리학에서는 인간이 거주하는 취락이 Node이고, 이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Link입니다. 사회학에서는 각종 사회적 주체가 Node이고 이들의 관계가 Link입니다. 경제지리학에서는 각종 경제주체가 Node이고, 이들간의 상호관계가 Link입니다. M. Castells이 Network Society가 도래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만<sup>18)</sup> 오늘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이러한 Network가 국내·국제간을 중흥무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밀도가 높고 빈잡한 연결고리(Node)를 Hub라고 하지요. Node나 Link가 경제적인 것이던 사회적인 것이던, 문화적인 것이던 간에 이것은 공간현상이요 지리적 실체입니다. 따라서 지리학 연구의 본령에 속하지요.

Embeddedness는 연구자에 따라 뿌리내림, 착근성, 또는 배태성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회에 정착되었다는 뜻인데 흔히 “지역화되었다”, “사회화되었다”는 말과 통합니다. 입지론에서 관성(Inertia)이란 말과 의미 상통하는

말이지요. 한 산업이 어떤 입지에 정착하면 설사 처음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오래 뿌리를 내리면 이익을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기반사회에서 사용하는 이들 용어가 과거의 입지론에서 사용하던 용어와 완벽하게 같은 것은 아니지만 지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분석·정리하여 왔습니다. 근자에 와서 이들 용어의 의미와 메카니즘이 기술혁신을 매개로 해서 약간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것을 굳이 「New geography」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 후에 패러다임이 또 바뀐다면 그때는 무슨 「geography」라고 할 것입니까.

이러한 공간적, 지리적 맥락의 중요성을 사회학이나 경제학이 이제 깨닫고 있는 셈이지요. 저들은 지금까지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의 「시간적 의미」에 매어있었기로 굳이 말하자면 경제학이나 사회학은 지금 「지리적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이란 전통의 뿌리에서 돌아나는 새싹과 같습니다. 낡아 빠진 격언 같지만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은 오늘과 같은 첨단기술사회에서도 합당한 길입니다.

끝으로 한국의 경제지리학이 오늘의 시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 봅시다. 1998~2007년간 「경제지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총

181편중에 공업입지·공업단지·다국적기업·지식산업·클러스터에 관한 논문이 총 68편으로서 38%를 점하고 다음이 서비스·물류산업을 비롯해서 문화산업, 관광산업에의 관심이 역시 높은 편입니다. 오직 「한국 경제지리학회지」만의 통계이므로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의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오늘의 시류에 영합적인 테마가 많고 옛날에 비하면 관심의 스펙트럼은 넓어졌으나 재래산업이나 골목산업, 1차산업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인 것이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제도주의적 접근, 구조주의적 접근, 포스트모던적 접근 등 서로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

- 1) 박동묘, 1955, 경제지리, 서울 : 일조각.
- 2) 송종국, 1959, 경제지리, 서울 : 동국문화사; 육지수, 1959, 경제지리, 서울: 서울고시학회사.
- 3) Wittfogel, K., A., 1929, "Geopolitik, Geographischer Materialismus und Marxismus," in *under dem banner Marxismus* 3(1, 4, 5), also in *Antipode* 17(1), translated by G. L. Ulmen.
- 4) Peet, R., 1985, "Introduction to the life and thought of Karl Wittfogel," *Antipode* 17(1), pp.3~20.
- 5) 최복현 역, 1958, 경제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Jones, C. F. and Dakenwald, G. G., 1954, *Economic Geography*, London: McMillan).
- 6) 이정면, 1957, 서울시 채소와 연료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특집 '지리학 30년(1945~75)의 회고와 전망,' 지리학 13호, 1976년.
- 8) 한국지리학, 현재·과거·미래,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1995년 10월.
- 9) 형기주, 2007, "잊을 수 없는 일들," 대한지리학회 뉴스레터 94호, p.16.
- 10) 형기주, 2005, "숫자로 본 대한지리학회 60년," 대한지리학회지 40(6), p.753.
- 11) 형기주, 1976, "경제지리학," 특집 '지리학 30년(1945~75)의 회고와 전망,' 지리학 13호, pp.32~34.
- 12) 박삼옥, 1995, "한국 경제지리학의 반세기," 한국지리학, 현재·과거·미래,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pp.104~105.
- 13) Poire M. J. and Sable, C. F.,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New York: Basic Books, Inc., pp.4~7.
- 14) op. cit., p.5.
- 15) 박삼옥, 전계서, p.114.
- 16) Giddens, A., 1999, *Runaway World*, London: Profile Books, Ltd., Chapter 1.
- 17) 박삼옥, 2006, "지식정보사회의 신경계공간과 지리학의 연구방향," 대한지리학회지 41(6), pp.636~656.
- 18) Castells, M.,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Blackwell.

최초투고일 2007년 12월 3일

최종접수일 2008년 1월 10일